

MERITZ 메리츠화재

금융그룹 복합금융점포 MERITZ CAFE 오픈



메리츠화재는 계열사 간 신규 영업채널 확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경기도 분당구 수내동에 화재 및 중금증권의 여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복합

금융점포 'MERITZ CAFE' 1호점을 오픈하였다.

이날 오픈식에는 금융지주 박익현 사장, 메리츠화재 강태구 경영전략총괄, 이상국 개인영업총괄, 조영환 마케팅본부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과 중금증권 김용범 부사장 등 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참석해 MERITZ CAFE의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중금증권의 시장기반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모델을 제시할 MERITZ CAFE는 타 금융사와 차별화된 채널을 구축하고, 그룹 브랜드의 홍보효과 확대를 위해 신설되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선보일 수 있어,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리츠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메리츠화재는 어린이 경제캠프 등 청소년 공익사업 지원을 꾸준히 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도 교통사고 유자녀 7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또한 번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22일 강남사옥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유자녀와 결연 멘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메리츠화재 정경태 인사총무본부장은 9명의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메리츠화재는 분기별로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교통사고 유자녀들은 메리츠화재의 멘토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화손해보험

고졸공채 신입사원 채용 및 사령장 수여식 진행



한화손해보험은 학력차별 및 학력 인플레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능력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그룹정책에 맞추어 고졸신입사원 22명을 채용하고 2월 24일

본사사옥 26층 교육장에서 고졸공채 신입사원들에게 사령장을 전달하였다. 사령장 수여식에는 박석희 대표이사, 이은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입직원들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경기도 가평 그룹 인재경영원에서 한화그룹의 핵심 가치를 비롯하여 CS교육, 보험심 등 입문과정을 실시하였다.

박석희 대표이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성실하게 근무하여 미래의 한화손해보험의 큰 주역이 되어달라"는 격려와 함께 회사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앞으로 고졸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마케팅대상에서 "모바일 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한화손해보험이 2월 2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경마케팅대상 시상식에서 "모바일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열린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한화손해보험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 마케팅담당 이봉수상무가 참석하여 수상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태블릿PC를 이용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이지(Smart Easy)' 전자서명 시스템을 1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2월 24일부터 장기보험 전 상품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업무 프로세스가 대폭 간소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졌다. 고객 또한 설계사와 한 차례만 만나도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약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 시간 절감은 물론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된다. 또한 종이 사용량과 물류비용 등 사업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사내방송 '해피통신' 오픈



롯데손해보험은 2월 22일 사내방송 '해피통신'을 개국했다. 이번에 개국한 '해피통신'은 사내소통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당사 72, 73기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은 물론 제작,

출연까지 이루어내어 사내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당사의 2012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2012 Get 2!' 슬러건 송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로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영상 속 돌발퀴즈 맞추기 등 임직원의 참여도도 높였다.

롯데손해보험 김진익 경영지원본부장은 방송을 통해 '롯데손해보험의 곳곳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개국 축사를 남겼다. 한편 사내방송 '해피통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다.

명사특강 실시



롯데손해보험은 1월 19일 본사 21층 교육장에서 본사 소속 책임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핵심

가치 공유·확산을 통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과 성공의 DNA 구체화를 위한 것으로 박태원 DNI 컨설팅 대표가 '고객만족 경영과 성공적 마케팅 전략(고객 Trend의 이해)'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2월 23일에는 본사 소속 대리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나와 동료 신나는 일터 만들기'란 주제로 한국메리비안 아카데미 임미연 원장을 초빙해 강연을 진행했다. 내부고객의 중요성 인식, 동료와 소통하기 등에 대해 강사의 경험 및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개해 경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린손해보험

창립 65주년 기념식 개최



그린손해보험은 2월 1일,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5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1947년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로 창립한 이래 65년 간 한국 손해보험역사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을 거듭해온 그린손해보험을 자축하고, 성실과 노력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한 20, 25주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 순서로 진행됐다.

라용규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풍부한 경험, 혁신을 위한 노력 그리고 65년 자긍심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있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강한 기업체질을 갖추자"고 격려했다. 더불어 "창립 65주년을 맞은 2012년에는 단결과 화합, 진취적인 기상으로 흑자전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가튼튼 치아보험' 출시



그린손해보험은 2월 9일 치과치료부터 외모관련 수술까지 보장하는 진화형 치아보험, '이가튼튼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이가튼튼 치아보험'은 손보업계 장기보험 최초로 출시된 치아보험으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충전치료하거나, 영구치 발거 후 보철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아전문보험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특정치아 부담보 특약'을 개발해 특정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치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가입은 15세부터 최고 55세까지 가능하며 치아치료비는 최대 60세까지(3년갱신), 외모관련 수술비 등 기타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형태는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이원화했다. '진단형'은 가입 즉시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영구치 발거, 다양한 충전치료를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질병병 아니라 상해로 인한 치료도 보장한다. 또한 언어 및 시청각장애 보상금은 물론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피부질환수술비 담보 등을 통해 장애보장과 현대인에게 민감한 외모관련 수술비 보장으로 상품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사원회사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 출시



흥국화재는 주력 상품들의 장점만을 간추려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폭넓게 보장해주는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을 지난 1월 10일 출시했다.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가입자가 157종의 보장담보 중에서 본인의 생활방식 및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어, 별도의 임전용보험, 실손보장보험 등의 전용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넓은 보장범위와 큰 혜택에 비해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특정 담보에 대해 보장기간을 가입자가 다양하게 조정해서 원하는 활동기간에 질병사망, 상해·질병 후유장애, 암진단 시 보험금을 집중보장 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소득보상자금, 고도 후유장애 시 유족생활자금 등도 소득상실기간에 집중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대체 특약에 가입하면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시 보험료가 전액 납입 대체되어 고객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 설계사 시상식 및 민원 감축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 결의



흥국화재는 2월 15일 서울 신문로 흥국화재 본사빌딩에서 ‘2011 Winners Club’ 시상식을 개최했다. FC채널 설계사들 중 2011년 4

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W(한 주 3건 계약 달성), 2W(한 주 2건 계약 달성)를 36주 이상 연속 달성한 3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흥국화재 김용권 대표이사는 수상자에게 인증서를 전달하며 성과를 격려했다. 시상식 후에는 오찬과 난타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엔 최초 실시된 ‘Winners Club’ 시상식은 우수 FC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축하하는 장으로서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흥국화재는 2월 2일, ‘2012년 금융감독원 민원평가 2등급’을 달성을 위한 목표달성 결의 워크숍도 실시했다. 김용권 대표이사과 고객지원실장, 자동차보상본부장, 영업부장 등 13명의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민원 발생 감축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할 것을 결의했다.



‘2020년 글로벌 Top 10 로드맵’ 제시



삼성화재 김창수 사장은 2월 7일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1의 가치라는 김 사장의 평소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 『業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김 사장은 『2020년 글로벌 Top 10』 달성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는 경영목표 부문, 고객·시장 부문, 핵심역량 부문에서 성장기반 확충 단계(~2013년) → 적극적 성장추진 단계(~2015년) → 글로벌 수준 달성 단계(~2020년)를 거쳐 삼성화재가 2020년 아시아 손보 3위, 글로벌 손보 10위의 초일류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도전정신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금년 1월 싱가포르에 ‘삼성리(삼성재보험 주식회사(Samsung Reinsurance Pte.Ltd.))’를 설립하여 선진 재보험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에서도 국내 기업 중심의 영업에서 탈피하여 자동차보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안에 러시아 주재사무소 개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 보험계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lobal IT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해외사업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해외사업의 성공은 글로벌 인재 확보 여부에 달린 만큼 2015년까지 상품, 언더라이팅 등 전문 분야의 글로벌 핵심인력 200여 명을 확보하여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화재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객가치”와 “나눔”을 양대 축으로 삼고, 교통문화지원사업 및 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어린이교통안전지원 등의 활동에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올해부터는 기존의 순직경찰유자녀, 교통사고유자녀 지원에 더해 소방관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H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멀티플암보험 TV광고 방영



현대해상은 하이라이프 멀티플암보험 TV광고를 제작해 지난 2월 1일부터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하이라이프 멀티플암보험 TV

광고는 재발암까지 보장한다는 상품의 특성에 걸맞게 <신호등>편과 <재발암>편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멀티'로 제작했다.

<신호등>편은 신호에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리게 되는 점에 착안해 암의 재발하기 쉬운 특징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재발암>편은 재수생에게는 재수학원이, 재혼부부에게는 전문 결혼정보업체가, 재충전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재충동이 딸이 있다면 재발암에는 멀티플암보험이 있다는 메시지를 유티 있게 표현하여 광고의 재미를 유발했다.

2012 이데일리 금융명품대상 최우수상 수상



지난 2월 2일 63시티에서 있었던 이데일리 주관 금융명품대상 시상식에서 현대해상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멀티플암보험이 손해보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데일

리 금융명품대상은 고객만족도, 독창성, 마케팅전략, 사회공헌도 등을 평가해 금융감독원의 최종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하는 시상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암보험의 후속 상품인 멀티플암보험은 암보험 시장을 재창출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초로 재발암 및 전이암, 이차암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 특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LIG 손해보험

(주)한국카셰어링과 '카셰어링(Car Sharing)' MOU 체결



LIG손해보험은 동국대학교 자회사인 (주)한국카셰어링과 '한국형 카셰어링(Car Sharing)' 사업 관련 보험상품 개발 및 차량관리 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월 9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카셰어링(Car Sharing)이란 일반 렌터카와 달리 예약 후 회원 카드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새로운 렌트(차량 공유) 서비스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 단위 임차가 가능하고 별도의 주유비가 들지 않아 자가용이나 일반 렌트카보다 저렴하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 보조를 받아 개발한 '카셰어링 시스템'을 도입해 (주)한국카셰어링이 지난해 11월 오픈한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여 곳에 서비스 거점이 마련되어 있으며, 2월 중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국 서비스에 돌입하였다.

'매직카24' 런칭, "고객 접점 서비스 한 차원 높일 것"



LIG손해보험은 28일, 'LIG매직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브랜드 명을 '매직카24'로 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점과의 직접 계약을 통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매직카24'는 '고객가치 1등 실현'이라는 기업 가치 아래 고객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 하겠다는 LIG손해보험의 서비스 철학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IG손해보험은 '매직카24'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위탁관리 방식에서 서비스 점과의 직접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점 모집을 진행해 왔으며, 1,400여 개의 신청 업체 중 총 500여 개의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동부화재

국내보험사 최초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리더그룹 선정



동부화재가 글로벌 최고의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스위스 SAM사가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연감(The Sustainability Yearbook)에서 글로벌 리더그룹인 Bronze Class로 선정되었다. 2011년 9월 다우존스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 지수에서 보험업계 최초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된 이후 두 번째 쾌거다.

지속가능경영 연감은 SAM사가 매년 DJSI 결과를 근거로 발표하는 보고서로서 지속가능경영활동이 우수한 세계 유수의 기업 가운데 Gold, Silver, Bronze 등급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보험사는 전 세계 13개뿐이다. 아시아에서는 동부화재와 일본의 손보재팬, 동경해상이만이 선정됐다. 특히, 동부화재는 전 세계 보험업 분야에서 2011년도 지속가능경영활동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으로 선정(Sector Mover)되는 영광까지 누렸다.

동부화재는 지속가능경영 Bronze Class 기업 선정을 계기로 기업과 사회의 공생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동부화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 CCM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관련 시스템의 구축·정비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지난 2011년 9월 총 306개 기업이 CCM을 도입하였으며, 동부화재를 비롯한 28개 기업이 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동부화재의 상품, 서비스 등을 더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동부화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서의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해소와 소비자의 권익 창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전국 4개 지역 쪽방촌 화재안전 봉사 실시

KFPA는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봄철 환절기를 맞이하여, 3월 17일 및 24일, 화재위험에 취약한 서울 영등포구, 부산 서구, 대구 북구, 대전 동구 일대 쪽방촌에 대해 화재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쪽방촌 지역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열?난방에 취약하여 화재발생위험이 매우 높으며,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시 전체로 확산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화재안전 사각지대이나, 화재안전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KFPA 화재안전봉사단은 가구별로 난방 또는 취사용 화기시설과 전기시설 등에 대해 화재위험을 확인하여 고쳐주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를 설치해 주었다.

KFPA 화재안전봉사단 관계자는 “쪽방촌 화재안전점검은 화재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집집마다 소화기 사용법과 거주자 능력에 맞는 대처요령을 알려주었다”며, “KFPA의 화재안전 봉사활동이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회 화재조사 세미나』 개최



KFPA는 화재조사 사례 및 화재현장에서의 조사기술을 공유하고 화재발생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군 소재)에서 『제2회 화재조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FPA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민·관 업무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 및 관련기관에서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재사례를 통한 증거물 처리요령 △용접화재의 잠재위험 및 예방대책 △전기화재 사례 및 예방대책(해운대 주상복합화재) △부주의에 의한 화재사례 및 예방대책 등 주요 화재원인에 관한 주제발표 이후, 방재시험연구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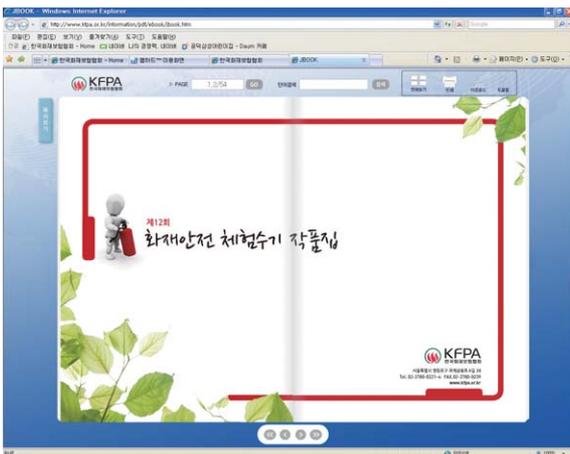
“국내의 화재조사의 흐름 및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사기술의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KFPA 관계자는 “미국에는 30여개의 보험회사가 설립한 ‘보험사기 방지 연합체(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가 화재조사 세미나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공공 영역에 의견을 제시하고 방화 등 보험범죄에 대해 수준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KFPA도 화재조사 분야의 과학화를 위해 매년 화재조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FPA는 방화에 대한 보험사의 과학적 화재원인조사 수요가 급증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이 갈수록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부터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010년 5월에는 경찰청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0년 6월에는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화재조사센터’를 신설하였으며,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국내 최대 종합방재시험연구시설을 활용하여 화재원인조사와 관련된 각종 연소시험, 화재 재현실험,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명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작품집』 제작·배포



KFPA는 지난 1월 생활 속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교훈적인 에피소드 15편을 모아놓은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작품집』을 e-book 형태로 제작하고 무료로 배포하였다.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작품집』은 작년 11월에 개최한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및 제안 현상공모」에서 수상한 작

품들을 엮은 것으로, 화재관련 경험의 공유를 통해 독자들에게 화재 시 대처방법을 간접 경험하게 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줌으로써 KFPA가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현재의 독서 트렌드에 맞춰 e-book 형태로 제작된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작품집』은 대상작의 경우 전문성우의 녹음 음원도 삽입시켜 화재 시 보다 큰 위험에 닥칠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FPA의 화재예방교육에도 사용하고 있다.

KFPA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43,19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중 46.4%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화재안전 체험수기 작품집』을 통해 화재예방의식을 갖추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률을 낮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에 부딪혔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정과 사회의 안전지킴이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작품집』은 KFPA 홈페이지(www.kfpa.or.kr)에서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분야까지 확대하여 체험수기 현상공모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회사 직원 등 초청교육 실시



KFPA는 2012년 2월 3일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군 소재)에서 손해보험회사 위험관리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방재기술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 위험관리 종사자들에게 성능우수 소방설계 및 화재 재현실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위험관리기술의 발전과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KFPA는 손해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매년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